

2023 기후위기대응·몽골 에코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23. 7. 18 (화) ~ 22일(토) 4박5일

목 차

1. 총 평	1
2. 연수 개요	2
3. 참가 인원	3
4. 주요 일정	4
5. 주요 기관방문 세부 추진결과	5
① 이태준열사 추모 기념공원 및 자이승전승탑 방문	5
②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방문	11
③ [동북아 기후변화대응 현안과 과제] 환경포럼	15
④ 한국-몽골 우호의 숲	18
⑤ 울란바타르 시의회 방문	19
⑥ 바양노르 습[郡]청 방문	22
⑦ 바양노르 ‘아시아 희망의 숲’ 조립 봉사활동	25
⑧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의 간담회	26
6. 연수 소감문	27

1 총 평

기후위기 대응 최초 연수로 단면적인 기관방문만이 아닌 국제 자원활동, 환경포럼 등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푸른아시아와 몽골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진행한 입체적인 활동으로 에코연수 내실화

- 2차에 걸친 사전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직접 기후위기 최대 피해국인 몽골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환경위기와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음.
- 25년 넘게 기후위기 현장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제 NGO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사막화지역 나무심기 자원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모델을 선도하고, 몽골 환경난민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킴으로써 일회성 구호가 아닌 지속가능한 삶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
- 몽골 지방의회 및 관련기관과의 사막화방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통해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확장 및 기후 리더십 증진
- ‘빈곤’ 이 중심이었던 국제사회의 아젠다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제적, 장기적인 기여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양한 지방의회 참가로 정보 교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 할 각 지역의 역할 방안 논의 등 심도 있는 연수 추진

- 한국 9개 도시 및 농촌 등 다양한 지역 참가로 정보교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각 지역특성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2 연수개요

연수국 : 몽골

- 울란바토르, 바양노르 솜

기 간 : 2023. 7. 18(화) ~ 7. 22.(토), 4박 5일

연수대상 :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원 17명

- 지자체(17명) : 시·도 1명, 시·군·구 16명

구분	서울	강원	전남	경남
인원 (17명)	10명	1명	5명	1명

※ 주관사 지원(3명): 푸른아시아 1명, 지방자치발전소 2명

연수목적

1.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구촌의 대응 모색

-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제시된 1.5℃ 기온상승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필요(UNEP, 2022).
- 미국, 유럽연합이 시작하는 탄소국경세(CBAM)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등 품목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 고탄소의존 한국 수출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애플은 자사 공급망 200개 기업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에게 2030년 탈탄소 달성을 요구함(2022년 10월). ① 청정에너지, ② 토양회복과 온실가스 흡수, ③ 공동체 주도 기후회복 달성의 3가지 지침을 제기함.

2. 국내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대응 필요

- 동아시아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 몽골의 심각한 사막화로 한반도 미세먼지 유입증가. 몽골의 모래폭풍은 중국의 공업단지를 지나면서 초미세먼지를 싣고 한반도로 상륙. 한반도 유입 황사의 53~71%가 몽골에서 발원(기상청, 2013~17,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 2030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천송도, 인천공항, 시흥, 고양 등 서울 면적 10배 5,900km², 330만 명이 집을 잃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발표(Climate Central). 기후위기로 서울, 수도권에 기후난민이 짧은 시간 안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우려
- 2022년 9월 6일 슈퍼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 침수 및 아파트 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 발생. 국내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기후위기에 취약함을 확인. 2022년 8월 6일 115년 만의 폭우로 서울 강남 침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사 발생. 한국도 기후위기 심각단계 진입함.

3. 몽골 에코연수를 통한 기후 리더십 역량 배양

- 기후변화·사막화 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환경문제의 현장을 방문해 환경위기와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
- 국제 환경포럼 및 기후변화 피해지역 토양복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확장 및 현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 소양 증진
- 국제 환경 문제의 동향 및 정책적 해법 이해를 통한 지방정부 정책 결정의 한 축인 지방의원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배양

3 참가 인원

연번	소속의회	이름	직위	성별	비고
1	서초구의회	안종숙	전여네 공동대표 부의장	여	
2	횡성군의회	김은숙	전여네 공동대표	여	
3	산청군의회	정명순	의장	여	
4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여	
5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여	
6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여	
7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여	
8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여	
9	보성군의회	이춘복	산업건설위원장	남	
10	보성군의회	문점숙	행정자치위원장	여	
11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남	
12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	여	
13	용산구의회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	남	
14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	남	
15	용산구의회	장정호	의원	남	
16	용산구의회	김선영	의원	여	
17	용산구의회	이인호	의원	여	

※ 주관사 푸른아시아/지방자치발전소 담당(총3명) 전 일정 동행

4 주요일정

일자	방문도시	교통편	시간	세부 내용
1일차 07.18. (화)	인천 울란바타르	KE197	06:00 08:10 11:00 오 후	인천공항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 도착 [역사탐방] • 이태준기념공원, 자이승전승탑 방문
2일차 07.19. (수)	울란바타르	전용 차량	오 전 오 후	[기관방문]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방문 • 교육활동 소개 [환경포럼] 동북아 기후변화대응 현안과 과제 • 강연: 아다슈렝 전환경부장관 / 에코아시아대 총장 [기관방문] 울란바타르 시의회 및 시청 방문 • 몽골 사막화와 지방의회 역할 • 지방의원 간 교류 [조림지 견학] • '한몽 우호의 숲' 견학 • 국제 환경 자원 활동 현황 살피기
3일차 07.20. (목)	바양노르	전용 차량	오 전 오 후	[기관방문] 바양노르 숲[군]청 방문 • 숲장 및 주민의회 대표 면담 [조림체험] 바양노르 '아시아 희망의 숲' • 조림 자원봉사활동(나무심기, 구덩이파기, 물주기) • 현지 주민과 교류 • 기후변화 사막화 체험
4일차 07.21. (금)	울란바타르	전용 차량	오 전 오 후	[기관방문]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김종구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와의 간담회 • 몽골현황과 상호 교류 확대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몽 협력 방안 [환경체험] 칭기스칸박물관, 테를지국립공원 견학
5일차 07.22. (토)	몽골 인천	KE198	13:00 17:20	인천으로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5 주요 기관방문

1 이태준열사 추모 기념공원 및 자이승 전승탑 방문

- 일시 : 2023. 7. 18.(화) 오후
- 장소 :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자이승
- 접견자 : 재몽골 한인회 박병욱 수석부의장, 윤재경 사무총장
- 주요내용 : 대암 이태준 선생(1883년~1921년)은 1914년 몽골에 입국하여 '동의의국' 이라는 병원 개업 후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베풀면서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항일 활동을 전개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임. 1921년 울란바타르를 점령한 러시아 백군에 의해 피살됨. 2001년 7월, 이태준 지사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재몽골 한인회와 연세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300평 규모로 공원을 건립하였고, 2010년 6월 이태준 기념관을 개축하였음. 현재 한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자이승 전승탑은 울란바타르시의 남쪽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높고 가느다란 랜드마크인 전승탑으로 여러 전투에서 희생된 '무명군인과 영웅' 을 기리기 위해 세워 졌으며, 아래로 울란바타르 시내 전체가 조망됨.

○ 관련 사진



이태준열사 추모비

이태준열사 묘



이태준열사 참배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기념공원 안내판



자이승 전승탑 탐방

자이승 전승탑 탐방

2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방문

- 일시 : 2023. 7. 19 (수) 오전
- 장소 :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담부다르자 거리
- 접견자 : 푸른아시아 몽골지부 신기호 지부장, 이규호 사무국장
- 기관개요 :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푸른아시아에서 환경난민 대상 주민 임농업전문교육을 위해 건립된 교육센터
- 주요내용 :

1) 설립목적 : 환경난민 등 환경·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포괄하여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역량강화·주민조직을 지원하여 몽골 전역을 연계하는 임농업 중심 주민자립의 허브 구축 목적으로 2017년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담부다르자에 건립되었음. 매년 몽골 주민들에게 임농업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역에서의 대안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2) 임농업교육센터 시설 현황

대지면적 9천평, 연면적 3백평의 3층 규모 건물로 강의실, 실습장을 구비하고 있음.

주소	112/1, Dambadarjaa street, 16th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Zip code 14060)		
대지면적	30,000㎡(9,075평)	건축면적(1층)	354.18㎡(107.14평)
규모	지상 3층	건축연면적(1,2,3층)	1,060㎡(320.65평)
부속건물	보일러실 52㎡(15.7평), 컨테이너창고 127,2㎡(38.5평), 가스저장고 4㎡(1.2평), 실습용 비닐하우스 6동(7.5m×44m), 실습교육용 계로 2동, 경비원 숙소계로 1동, 경비원 초소 1동		
실습장 현황	비닐하우스 : 1동 - 양묘실습(비슬나무, 라일락 등), 2동 - 영농실습(토마토, 피망 등), 3동 - 양묘(녹지삼목: 버드나무, 아카시아 등), 4동 - 양묘(파종: 비슬나무, 라일락 등), 5·6동 - 한몽그린벨트사업단 양묘장 활용 노지실습장 : 차차르간 56주, 우호린누드 69주 실외방풍림 : 낙엽송 1,298주, 포플러 50주, 소나무·전나무 500주, 조경수(라일락) 52주		



3) 임농업교육센터 교육현황



환경난민대상임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하여 몽골노동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전문과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



환경부, 기상청, 아이맥[勸] 등 환경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및 토양복원 조림교육을 실시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사막화 등의 인식 확대와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함

COVID-19로 몽골정부의 방역규칙을 준수하여 소집단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했고 22년부터 본격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활성화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주민, 녹지담당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약 3천여명이 임농업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 등을 수료함.

4) 임농업교육센터 효과

-농·임업 전문 허브교육 :

전국의 교육생들이 모여 경험과 이론을 공유하고 교육 후 몽골 전역에 파견하여 지식·기술을 이전하는 공간

-사막화 방지 활동 확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조성 및 생태복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푸른아시아뿐만 아니라 타기관 및 정부에 필요한 인력을 보급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중장기적 지역개발사업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공헌활동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

-주민자립 역량강화

기후변화 피해로 환경난민이 된 유목민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

○ 관련 사진



임농업교육센터

임농업교육센터 시설 설명



임농업교육센터 몽골대통령 방문

임농업교육센터 홍보물

3 환경포럼

- 행사명 :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대응 현안과 과제] 환경포럼
- 목 적 : 한국과 몽골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동북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일 시: 2023.07.19.(화) 10:00~12:00
- 장 소: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대강의실
- 포럼 진행일정

구 분	소요 시간	주요 사항	비고
10:00 ~ 10:10	10분	○ 개회사: 한몽교류협력현황 신기호(재몽골한국NGO협의회장)	
10:10 ~ 10:50	40분	○ 주제 강연 1. 몽골의 사막화 현황 -아다수렝(전 몽골 환경부 장관) 2. 몽골의 사막화 방지 정책 -체필(몽골 환경부 전문위원)	※ 각 20분 발표
11:00 ~ 12:00	60분	○ 패널 토론 기후변화 대응과 공동체 자립 모델 1. 만다흐(몽골 과학아카데미 사막화방지연구소) 2. 바트새한(몽골 과학아카데미 지리생태연구소) 3. 나상자라갈(몽골 전국유실수협회 회장) 4. 바자항다 (몽골 여성농민회 대표)	※한국 지방의회 방문단의 토론 참여

질문 1

■ Q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몽골 한국 NGO 푸른아시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달라

⇒ (사)푸른아시아는 1998년 ‘(사)한국휴먼네트워크’에서 시작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동북아 지역의 기후위기와 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이상 몽골 내 여러 기후위기 지역에서 조림사업과 주민공동체 조직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국제 NGO단체임.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의 활동을 요약하면 몽골의 생태복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장 조성, 조림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민자립 사업 등 조림사업장 인프라 구축(Hardware)과 주민교육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Software) 등을 결합한 포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단순한 식재, 조림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조림지의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림사업과 더불어 공제회, 조합 결성 등 주민 자립 기반조성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푸른아시아가 현재까지 조성한 몽골 내 조림사업장은 돈드고비 아이막(1개지), 투브 아이막(4개지), 불강 아이막(2개지), 아르항가이 아이막(1개지), 울란바타르 시(2개지) 등 10개 지역으로, 전체 조림 790ha, 88만주(축구장 1,100여개 규모/ 2022년 기준)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200여명의 지역민들이 조림지 조성, 관리에 참여하며 주민 자립 기반을 키워가고 있음.

또한 몽골 임농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임농업교육센터는 조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2017년 푸른아시아가 설립한 전문교육센터임. 지역민에 의한 조림활동과 병행하여 <임농업교육센터>를 통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의 주역인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임농업 전문교육과 협동조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사막화 지역 조림사업

참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업종 일반시민, 공무원, 전문가들을 위한 시민참여 전문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리고 몽골 임농업 가치사슬(SVC, Sea Buckthorn Value Chain) 구축 사업을 하고 있음. 유실수 열매를 가공, 판매하는 임농업 가치사슬 확대사업(가공공장 설립, 주민생산자 네트워크 설립, 주민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적응 모델 사업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질문 2

■ Q2. 몽골의 사막화 현황과 대책은?

⇒지난 80년간 몽골 기후지표의 관측에 따르면 연평균 2.25° c 상승, 강수량은 8% 감소중이며 전체 국토의 78%가 사막화가 되어버린 상황임. 몽골 내 모래 폭풍 발생일수도 급증하고 있음. 영구동토층은 30%가 감소, 1166개의 호수와 연못 887개의 강이 소멸됐고, 동식물 종의 75%가 멸종되는 등 심각한 기후 변화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임. 몽골의 사막화 요인중 자연적 요인은 13%이고 자원개발,온실가스 증가 등 인위적 요인이 87%임.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사막화도 급속도로 가속됨. 동북아 기후위기 최대 피해지역이 몽골임.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 기후 변화,가뭄,그리고 심각한 겨울 혹한으로 몽골의 많은 유목민들이 생계를 잃고 일자리를 위해 수도로 이주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난민인 빈곤층이 증가하고 울란바타르 수도의 생태적 역량을 초과(인구 58만에서 180만까지 증가)하여 도시집중화와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대기오염 문제 대두됨. 세계98개국 중 대기오염 3위임.

대책으로 수력발전소 건설과 “10억 나무심기” 민족운동을 시작했음. 울란바타르 티무르강은 러시아로 흐름. 아직까지 몽골은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러시아는 수자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 그리고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국가운동을 시작했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몽골인구는 3백만명 정도라 외부인들의 식재 지원이 절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식재봉사를 해주길 바랍.

참 고

주제 강연 자료 /-아다수령(전 몽골 환경부 장관/현 에코아시아환경대학교 총장)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natural disasters and the national movement of billions of trees in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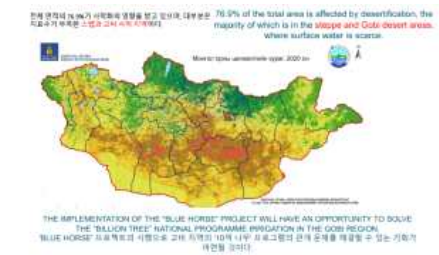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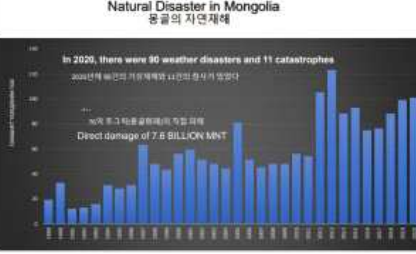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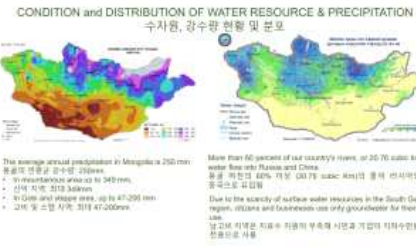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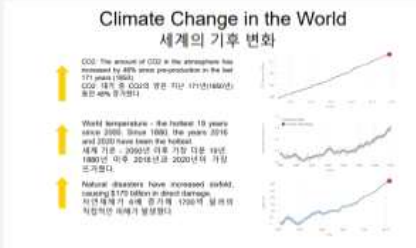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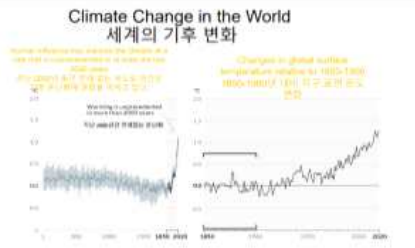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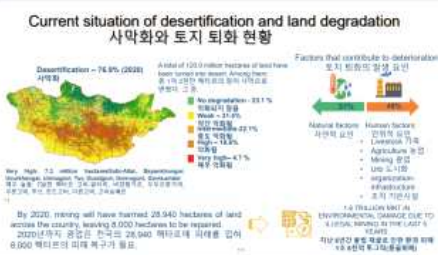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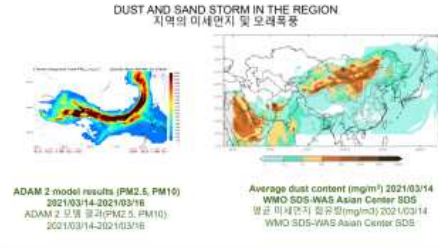
몽골의 기후 변화, 사막화, 자연재해와 10억 나무심기 민족운동

Professor: ADYASUREN Tsukhbaatar
President of ECO ASIA
Environmental University
에코 아시아 환경 대학교 총장

Forum on Afforestation in Asia and Green Finance for Climate Recovery
아시아녹화포럼 및 기후회복을 위한 녹색금융
2022.04.26 SEOUL, KOREA

CONTENT 목차

- Current Climate Change and Desertification Situation
기후 변화와 사막화 현황
- Impac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영향
-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 협력
- One billion tree national movement in Mongolia
몽골의 10억 나무심기 민족운동



Environmental migration in Mongolia

몽골의 환경 난민 이슈

- Many herders are fleeing the countryside for the capital and aimag cities, having lost their livelihoods - livestock animals owing to climate change, drought and severe winter dzud
- 몽골의 많은 목축업자들이 기후 변화, 가뭄 그리고 심각한 겨울 폭설(독한겨울)로 인해 생계를 잃고 도시로 이주
- It has the following negative consequences:
 - Poverty has increased throughout society.
 - 도시 전반에 걸쳐 빈곤이 증가
 -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 capital city's ecological capacity has been exceeded.
 - 환경적 용량에서 수도의 생태적 역량을 초과
 - Traffic congestion is increasing in the socioeconomic.
 - 교통체증 증가
 - Unemployment is still on the rise.
 - 실업률 증가

Impact of Environmental migration in Mongolia

몽골의 환경 난민 이슈의 영향

- Negative social effects in Ulaanbaatar:
 - Urbanization of rural population
 - 도시로의 농촌 인구의 유입
 - In 1990, the population of Ulaanbaatar was 650,000
 - 1990년 울란바타르의 인구는 65만 명
 - In 2022, it will exceed 1,500,000
 - 2022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 Negative ecological effects in Ulaanbaatar:
 - Urbanization of rural population
 - 도시로의 농촌 인구의 유입
 - Air pollu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 대기 오염의 급격한 증가
 - The city's soil has been heavily eroded
 - 도시의 토양 침식
 - Fresh water supply has deteriorated
 - 깨끗한 물 공급의 악화

CLIMATE CHANGE POLICY AND LEGAL ENVIRONMENT

기후 변화 정책과 법적 환경

UNFCCC의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후 변화 정책(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을 수립(2011, 2012년)하고, '녹색 발전 전략'(Gree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2018년)하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2016년)함



Action Plan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for 2020-2024
 몽골 정부 2020-2024년 행동 계획

-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12.3% on a 2010 basis by 2030
- 2010년 기준 12.3% 감축
- Government Decree No. 407
- 판정령 제407호
-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2.7% (2030) on a 2010 basis by 2035
- 2010년 기준 22.7% 감축

Cooperation between Eco Asia University and Korean "Green Asia Network" NGO

에코아시아대학교와 한국 푸른아시아의 협력

In 2014,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Purpose: Unite and work together against Mongolia's desertification and dust storms.

목적: 몽골의 사막화와 황사 대응하여 연대 협력

- Cooperation:**
협력 내용
- Share your experience
 - 경험 공유
 - Eco Asia University students are planting trees in residential areas in collaboration with Green Asia.
 - 에코아시아대학교 학생들이 푸른아시아와 협력하여 지역에 나무 심기
 - Students training practice
 - 학생들의 실습 훈련
 - To organize workshops.
 - 워크숍 조직

Bi-lateral cooperation

양국 협력



- Forestly cooperation program
- Protection Against cross-border forest fire and illegal logging
- Green Belt and Green Asia Network NGO
- Yellow dust storm monitoring and capacity building
- Combating desertification
- Cooperation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under the Green Belt for Region and country
- Yellow dust storm monitoring and capacity building
- Combating desertification
- Adaptation for joint leading program
- Prevention and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ILLION TREE" NATIONAL CAMPAIGN

"1억 나무 심기" 전국 열매인

Mongolia has announced national campaign to plant billion of trees by 2027

몽골은 2027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국가적 캠페인을 발표함

To prefer Mongolian traditions and customs of living in harmony with the motherland and the environment, to reduce the impact of global climate change and desertification, to protect and increase the forest and water resources, and to ensure ecological balance

30 million hectares of Mongolia are severely affected by desertification

156,500 ha

250.4 million

PROJECT PROPOSAL

COMMUNITA TO DESERTIFICATION AND MITIGATING THE DUST STORM IMPACT

지역의 방제 및 황사 저감

AIMS 목표

Intensify regional collaboration in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in Mongolia, reducing the sources of dust storms, improving the monitoring system, and developing and introducing innovative ecosystem-based technologies

Outcome 성과

62.3 million trees will be planted

5,230만 그루의 나무 식재

Duration: 10 years (2022-2032)

Location: 8 provinces 40 soums

Funding: 300 million USD

기간: 10년(2022-2032)

위치: 8개 자치구(총 40개 소목)

기금: 3억 달러

ONE BILLION TREE NATIONAL MOVEMENT EXPECTED RESULTS

1억 나무 심기 전국운동의 기대 효과

OBJECTIVES: 목표

- Reduc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
- Reduce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
- Enhance green space in cities
- 도시 녹지 공간 확대
- Community tree and urban greening initiatives
- 공동체 나무 심기 및 도시 녹화
- Rehabilitation and adap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rivate sector responsibility
-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태 복원

FINANCING MECHANISMS: 금융 메커니즘

- Private sector investment
- 기업 투자
- International financial mechanism
- 국제 금융 메커니즘
- Blended and multilateral operations
- 혼합 및 다자간 운영

IMPORTANCE: 중요성

- Contribute to the global goal of zero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이기
- Improve forest cover
- 산림 복원
- Reduce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
- Improve habitat quality
- 생태 질 향상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TYPE: 구조 및 조직 유형

- Establish a forest agency under the State
- 국립 산림청 설립
- Forest seeds in the strong (강력한) seedling) introduction, harvest and tree-plant control and protection body
- 산림 종자, 묘목 생산 및 관리 및 보호 체계
- Encourage citizen stability
- 시민 참여 유도

"BILLION TREE" NATIONAL CAMPAIGN IMPLEMENTING STRATEGY

"1억 나무 심기" 전국 열매인 실행 전략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환경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

■ 몽골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결과

- ⇒ 지자체와 협력 가능한 사업부문으로는
- (1) 사막화방지(황사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 조림사업,
 - (2) 기후난민 대상의 임농업 전문교육(직업교육), 환경교육(인식개선)지원사업
 - (3) 기후난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양묘 지원 및 유실수 생산가공 지원사업

⇒ 국내적으로는 올해 푸른아시아에서 우리금융(사랑의열매) 지원을 통해 '우리가 Green 기후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기후교육 교재 개발 및 교안 제작, 교사연수, 기후위기 취약지역 중고등학교 대상 시범교육 실시, 기후리더십 몽골연수 진행 등을 하고 있음.

현재는 남해시와 협력하고 있는데 향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학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관심갖고 협력하는 방안 제안.

⇒ 각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서울시,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인천시 등이 몽골의 사막화지역에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타지자체의 참여와 협력 필요

○ 관련 사진



환경포럼

환경포럼



주제발표

전여네 대표단 인사



환경포럼

환경포럼

4 한국-몽골 우호의 숲

- 일시 : 2023. 7. 19 (수) 14:00~15:00
- 장소 :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담브다르자 거리
- 기관개요 :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산림청)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시에 조성한 도시숲 공원
- 주요내용 : 울란바타르시 도시 대기질 개선 및 몽골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 제공 및 한국과 몽골의 친선우호교류의 일환으로 한국 산림청이 몽골 환경부와 협력하여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16동 담브다르자 지역에 건립. 총부지 면적 40ha, 공사기간 2017~2021년, 2021년 완공됨.

○ 관련 사진



한국-몽골 우호의 숲

한국-몽골 우호의 숲

5 울란바타르 시의회 방문

- 일시 : 2023. 7. 19 (수) 오후
- 장소 : 울란바타르시 직지드자브 거리
- 접견자 : 베.에르덴수흐(B.Erdenesukh) UB시의회 대표 시의원
베.바트밤바(B.Batbyamba) 시의회 행정실장
엠.할타르(M.Khaltar) 시의회 사무경영과장
- 기관개요 : 울란바토르(몽골어: Улаанбаатар)는 몽골의 수도로 도시 명칭의 뜻은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란 뜻. 1924년 몽골 수도로 지정. 면적은 4,704.4 km², 인구는 약 150만. 수흐바타르구를 포함 9개의 구(district)와 그 하위조직인 동(khoroo)으로 구성. 시장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를 총리가 임명하고 임기는 4년임. 의회 의원수는 45명으로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4년임.
- 주요내용
 - 양측 참석자 소개
 - 베.에르덴수흐(B.Erdenesukh) UB시의회 대표 시의원 환영사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안종숙,김은숙공동대표 답사
 - 간담회 :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천,수원,남양주,서울 등과의 기후위기 관련 교류-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UB시의회외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에 대한 의견나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여네와 UB시의회와의 친선 우호 교류와 조림사업 확대 등 상호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관련 사진



울란바토르 시의회 방문

※ 몽골 현지 기사 (<https://url.kr/49nr1e>)

기사 번역본

대한민국 시·구의회 대표단 방문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 용산, 강서, 강남구 및 보성, 산청, 강진군의회 대표단과 UB시의회 대표 베.에르덴수흐, 시의원 행정실장 겸 비서관 베.바트밤바, 시의회 사무경영과장 엠. 할타르 등이 만났다.

시의회 대표 베.에르덴수흐는 “푸른아시아 초청으로 몽골에 오셔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목표 안에서 이번 미팅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린다. 저희 시의회에는 환경녹지 위원회가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정기회에서 자주 표명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안종숙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의회 여성협의회는 2023년에 친환경적 활동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의 자연환경 변화와 사막화 현황을 파악하고(체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베.바트람바 시의회 행정실장 겸 비서관은 “시의회 산하 여성위원회도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근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식재 등 환경보호 방향으로 소요한다. 향후 저희는 녹지 확대에 관련하여 대외관계와 협력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전달한다”라고 말하였다.

6 **바양노르 슝[郡]청 방문**

- 일시 : 2023.07.20.(목) 오후
- 장소 : 몽골 불강 아이막[道] 바양노르 슝[郡]
- 접견자 : 어평치맥(Odonchimeg) 바양노르 슝장
알탄치맥(Alanchimeg) 주민의회 의장
- 기관개요 : 바양노르 ‘아시아 희망의 숲’ 관할 지자체
- 주요내용 :
 - 양측 참석자 소개
 - 어평치맥(Odonchimeg) 바양노르 슝장 환영사
 - 알탄치맥(Alanchimeg) 주민의회 의장 환영사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안중숙,김은숙공동대표 답사
 - 간담회 진행

질문 1

■ Q1. 바양노르 슝에 대해 소개해달라

⇒ 바양노르 슝 군청은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200km정도 떨어져 있음. 1979년 설립 당시 인구가 2천명 뿐이었으나 현재는 약 15만명에 달하며 사막화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임. ‘바양노르’ 라는 지명은 몽골어로 호수가 많다는 의미. 바양노르는 전통적으로 물이 많은 초원 지대로 유실수와 건초 재배로 손꼽혔던 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막화 진행됨. 유목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도시로 떠남. 15개였던 바양노르의 호수 중 9개가 이미 말라버렸음.

질문 2

■ Q2. 현재 바양노르 숲의 조림 현황은?

⇒ 푸른아시아와 함께 2007년부터 조림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16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바양노르 숲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뿐만 아니라 푸른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태임. 푸른아시아는 사막화방지에도 일조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여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막화로 인해서 물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 많은 한국기업들이 나무심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무심기 봉사를 하러 가족, 아이들과 방문했었음

질문 3

■ Q3. 한국과의 협력은?

⇒ 바양노르 숲은 2020년부터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후변화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질문 4

■ Q4. 어려운 점과 향후계획은?

⇒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림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었음. 그러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되었고 KOICA에서 교육관도 지어주고 태양열 패널도 무상제공해 주었음.

2020년 몽골대통령은 10억그루의 나무를 심기운동을 발표하였으며 군청장 역시 바양노르 지역 나무심기 대사로 임명되었음. 향후 바양노르 숲은 30만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계획임. 앞으로도 한국정부, 기업, 지방의회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 관련 사진



바양노르 숲장과의 간담회

바양노르 숲[郡]청 방문

7 바양노르 ‘아시아 희망의 숲’ 조림 봉사활동

- 일시 : 2023.07.20.(목) 오후
- 장소 : 몽골 불강 아이막[道] 바양노르 숲[郡]
푸른아시아 ‘아시아 희망의 숲’ 조림지
- 주요내용 :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푸른아시아의 첫 조림지로 한국희망재단, KOICA와 함께 현재 면적 130ha에 2022년 식재규모는 방풍림 70,968 유실수(차차르간)83,582목을 식재함.

2017년에 ‘바양노르 바양쇼고이’ 주민조합이 결성되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림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 연수단은 주민조합원과 함께 몽골 전역에서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방풍림 역할을 하는 비술나무(하일라스)를 식재함.

○ 관련 사진



아시아 희망의 숲



조림 봉사활동



조림 봉사활동



조림 봉사활동



조림 봉사활동



조림 봉사활동

8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간담회

- 일시 : 2023.07.21.(금) 10:00~12:00
- 장소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접견자 :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김종구
- 주요내용 :
 - 참석자 소개
 - 김종구 대사 환영사
 - 참석 의원 인사
 - 간담회 : 한-몽 관계 제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푸른아시아의 조림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관련 사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김종구 대사와의 간담회



선물 전달

기후위기,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몽골 에코연수를 다녀와서

보성군의원 김경미

최근 우리나라의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헤아릴 수 없는 재산과 유래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옳은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몽골정부의 초청으로 올 초부터 계획된 전여내 합동연수라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몽골에 도착했다.

몽골 사막화 문제가 곧 우리나라의 비 폭탄과 가뭄, 한파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기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4박 5일 동안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는 알찬 연수로 보내줬다는 다짐으로 시작했다.

몽골은 동북아시아 기후위기 최대 피해 지역이며, 모래폭풍과 사막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다. 지속적인 폭염과 토양건조로 인해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였고 산림과 목초지의 사막화와 여기서 비롯된 모래 폭풍이 계속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황사현상은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몽골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80년간 몽골 기후지표의 관측에 따르면 연평균 2.25℃ 상승, 강수량은 8%감소중이며 전체 국토의 78%가 사막화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영구동토층은 30%가 감소, 1166개의 호수와 연못, 887개의 강 소멸, 동식물 종의 75%가 멸종되는 등 심각한 기후 변화 피해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내가 살고 있는 보성도 1년 평균 강수량은 1,542L 정도로 관측되어왔다. 하지만, 작년의 가뭄에 이어 올해도 이상하리만큼 평균을 무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년 동일시기에 측정되던 강수량이 849L 정도였다. 허나, 올해 내린 비는 연누계

로 이미 1,300L를 훌쩍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22년 총 강수량 976L, 동일 시기는 459L인 것과 대조적이다. 즉, 지금 보성은 평년 강수량을 반년만에 벌써 다 기록한 상황이다.

불과 한 달 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으로 단수 예정, 절수, 물절약에 대한 마을방송을 매일 들으며 출근길에 올랐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물폭탄으로 홍수가 나고 도로 유실, 하천의 물이 방류가 되어 물빠짐을 준비할새도 없이 우리의 논과 밭이 하루 아침에 저수지가 되어버리게 믿기 힘들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금 우리나라도 목전에 도달했다. 이번 폭우피해는 7월 20일 자 기준, 충북오송지하차도 사망자 수 17명을 비롯해 경북예천 24명, 충남 4명, 세종1명 등 총 4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인명 피해 이외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는 2,278건으로 많은 농경지와 산사태, 도로 유실,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이 발생 하는 등 유래없는 장마 피해를 보여줬다. 이는 우리에게 더이상 기후 변화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몽골 연수를 통해 작게는 내 고향 보성, 크게는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몽골의 사막화를 더 이상 두고보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말, 소, 양 등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유목생활이 주가 되는 몽골인들은 사막으로 변해가는 지금의 상황에 더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어려워진 유목민들은 수도 울란바토르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이 도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후 난민'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몽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시민 단체가 있다. '푸른아시아'는 몽골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푸른 숲 만들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생명의 토지'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만들어 내고있다.

왜 이들은 낯선 땅 몽골에서 숲을 가꾸는걸까? 이들은 최근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가뭄, 폭염, 슈퍼 태풍 등 이상 기후와 여기서 비롯된 폭동과 테러, 대규모 환경난민 발생까지 코앞에 닥친 기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는 나무 한그루 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푸른아시아는 바양노르 솜청주민들의 생각을 바꿔 비타민나무와 비술나무(몽골느릅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로써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었고, 감자, 당근, 파 등 국내에서 많이 소비하는 채소를 심는 농업 방식을 알려주며 부족한 식량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했다. 푸른 아시아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단체가 아닌만큼 부족한 부분이 눈에 먼저 보였기 때문이다. 마음같아선 보성군의 농부들 10명만 모시고 가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농부 10명과 간단한 농기계만 있다면 몽골의 황야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기회가 된다면 몽골주민들을 보성으로 초청해서 우리의 체계적인 영농 교육과 기계 조작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우리 보성의 기술력과 농법은 전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감자, 부추 등 발작물은 수분이 많이 필요없는 작물이라 몽골의 땅에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므로 시너지를 이뤄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뿐 아니라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및 협력사항을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겠다.

시작은 분명 어려울 수 있다. 4월 5일 식목일이 빨간 공휴일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만 봐도 나무 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돕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부터 노력할 것이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성군도 함께 나무 한그루부터 심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메마른 사막에 희망을 심는 푸른아시아처럼 우리도 작은 것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이 아닐까 한다.

기후위기 대응 몽골 에코연수를 다녀와서~

보성군의원 문점숙

이번 연수가 몽골로 결정이 되어서 몽골 하면 떠오르는 상상의 그림!! 드넓은 초원, 소.말.양들의 천국.여유로운 유목민의 모습들,, 하지만 3시간 30분을 날아간 몽골의 모습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

몽골은 동북아시아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 지역이며 모래폭풍과 사막화로 사람이 살아가기 매우 열악한 국가였다. 점점,더 심해지는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80년간 몽골은 연평균 기온은 2.25도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8%감소했다고 한다. 전체 국토의 78%가 사막화 되었고 영구동토층은 30%감소 하였으면 1166개의 호수와 연못 887개의 강이 사라졌으며 동식물 종의 75%가 멸종 되었다고 한다.

지금 몽골 유목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축들의 초원이 사라짐으로써 말,소 염소,양들은 모두 죽어가고 유목민들의 전 재산인 가축을 모두 잃고 울란바트로등 도시로 모여들어 기후 난민으로 살아간다.

기후난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게르촌이 형성되어 난방시설도 없고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며 페타이어와 쓰레기등을 태우며 몽골은 세계에서 3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몽골의 사막화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듯 하다.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이 중국의 산업 단지를 거쳐 오염물질을 한국으로 몰고 오고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토록 몽골에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중이지만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 나또한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잘 몰랐을 것이다. 이번 에코연수를 통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기후 문제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국가를 비롯한 모두의 문제이며,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푸른 아시아는 25년전부터 몽골의 기후위기 지역에서 조림사업과 조림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활동뿐 아니라 유실수 열매 가공, 판매하는 임농업 가치사슬 확

대사업 (가공공장설립, 주민생산자 네트워크 설립)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적용 모델사업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이들이 함께 기후 변화 위기를 인지하고 한그루의 나무로 인해 토양을 살리고 떠나간 마을로 다시 주민들이 되돌아 올날을 기대하며 우리 의원들은 나무 한그루를 조심히 심고 잘 크길 바라며 바양노르 솜청을 떠나왔다.

나무를 심는 일은 온실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만드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였던 인간이 나무를 심으면서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무 심기 운동은 '파괴'에서 '살림'으로의 인간의 의식을 진화시키는 운동이다. 의식의 진화는 생활방식도 변화시킨다.

몽골을 뒤로 한채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이 들었다. 사소한 가정으로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 일회용 쓰지않기,물 절약, 전기절약, 세제 과하게 쓰지않기..너무나 많은 것들이 환경을 지키는 일인 듯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멈추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는 100% 기후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마을 단위의 작은 커뮤니티부터 국가 단위의 커뮤니티까지 관계망이 절실한 시점이다. 슈퍼태풍이나 지진,사막화, 폭우,폭염 같은 기후 재난에 더 극심한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농촌은 관계망을 통해 대안적인 '공동체 모델'을 마련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협력 방안,네트워크 구축 등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였고 기후위기 시대 지방의원으로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88만주 나무를 심고 가꾸는 푸른아시아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